



1931 카페를 선보이는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6 월 13 일부터 1931 카페를 오픈합니다. 우아하고 유쾌한 이 새로운 공간은 아르데코 디자인의 아이콘인 리베르소의 90 주년을 기념하여 탄생했습니다. 리베르소가 탄생한 시대의 스타일과 분위기에 빠져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이 팝업 카페는 6 월 상하이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에는 아르데코 운동의 발상지인 파리에서 오픈합니다.

아르데코에 바치는 오마주

1920 년대에 탄생한 아르데코 스타일은 기존의 장식을 배제하고 모던한 정신과 당시의 시대를 정의한 과정을 완벽하게 담아낸 간결한 기하학적 라인이 특징입니다. 이런 정신을 담아 1931 년에 만들어진 리베르소는 전통적인 시계 디자인의 규칙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독창적인 기능과 독특한 미학은 건축부터 자동차, 그래픽 예술, 가구, 영화, 패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 영역을 변화시킨 혁신적인 가치들을 보여줍니다.

아르데코 스타일의 정수를 담아낸 1931 카페는 1930 년대의 여객선의 우아한 인테리어와 화려한 영화 촬영장을 연상시킵니다. 블랙과 화이트 컬러 팔레트를 사용하고 따뜻하고 매력적인 빛이 가득 담긴 디자인은 크롬, 벨벳, 글래스, 래커 우드와 같은 아르데코의 시그니처 소재를 사용하고 아르데코 시대를 대표하는 기하학적 패턴 무늬의 대리석 바닥을 선보입니다. 공간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스트 글래스 샹들리에부터 리베르소 케이스의 가드룬을 떠올리게 하는 세 개의 메탈 밴드가 장식된 체어까지, 모든 디테일이 맞춤 디자인되었습니다.

쉐프 니나 메타예와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케이크와 페스트리로 이루어진 니나 메타예(Nina Métayer)의 특별한 컬렉션이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올해의 페스트리 셰프상(Pastry Chef of the Year)을 두 번이나 수상한 파리에 기반을 둔 젊은 셰프는 독창성과 예술성 그리고 뛰어난 맛으로 유명합니다.. 쉐프 니나 메타예는 1931 카페를 위해 인테리어의



아르데코의 미학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을 예거 르쿨트르의 본고장인 발레 드 주로 데려가는 달콤한 디저트들을 선보입니다. 산딸기, 견과류, 꿀, 스위스 초콜릿 등 발레 드 주에서 찾을 수 있는 맛을 사용하여 방문객이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공예와 같은 페스트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31 카페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작품 중에는 여름 과일을 중앙에 숨기고 눈 덮인 겨울의 쥐라 풍경을 연상시키는 놀랍고도 유쾌한 작품과 아트 데코 스타일을 기념하는 우아한 직사각형 모양의 헤이즐넛과 초콜릿이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저는 장인정신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표현 방식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내려는 아이디어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니나 메타예가 말합니다.

‘페스트리 셰프와 워치메이커는 같은 가치들을 공유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 완벽한 결과를 이뤄내고자 하는 같은 열정으로 움직입니다.’

파리에서 상하이까지 - 스타일 이야기

1931 카페가 열리는 두 도시는 아르데코 이야기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르데코의 발생지인 파리는 1920 년대에 도시 건축과 응용 예술에 처음 등장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원형적 요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프랑스의 수도에서 *세계현대산업예술전(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écoratifs et Industriels Modernes)*을 주최했던 1925 년이었습니니다. 전시회 이름에서 유래된 아르데코라는 용어는 1960 년대 말 예술 역사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이 전시회는 1930 년대 내내 지배적이었던 아르데코 스타일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한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상하이 역사에서도 아르데코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융합하는 독특한 ‘중국 아르데코’ 스타일은 1930 년대에 베이징이 동아시아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허브 도시가 되며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상하이가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리베르소 디자인이 탄생한 미학적 그리고 문화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1931 카페를 위한 완벽한 장소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6 월 13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열리는 1931 카페는 상하이 도심의 예술 및 패션 중심지인 K11 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가을에는 파리의 중심부에 있는 새로운 장소에서 1931 카페가 재현될 예정입니다.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젼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탄생 90 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